

멜로드라마에 나타난 남성상 유형의 변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Alteration of masculinity Types Shown in Melodramas -From 1992 to 2012-

이화정
부천대학교

Hwa-Jeong Lee(jung7061@hanmail.net)

요약

TV드라마의 여성상에 변화가 감지되었던 2005년을 기준으로 멜로장르 TV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의 변화상을 알아보기 위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시청률 상위 10위권 내 위치한 멜로드라마 74편의 남성 주인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남성 주인공의 남성상 유형의 변화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화한 유목은 첫째, 남자 주인공의 연령은 30대 이상이 증가하였다. 둘째, 미혼 남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거나 여성과 남성의 역할구분을 두지 않는 남성상이 증가하였다. 넷째,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남성상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문제 발생 시 타인을 의존하는 남성상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 남성상이 증가하였다. 남성의 직업과 경제적 수준, 성격과 성의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선행연구에서 보여 지던 남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은 부분 사라졌으며 현재의 남성상은 보다 양성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 중심어 : | 멜로드라마 | 남성 | 남성 유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masculinity types of the male lead appearing in melodrama genre TV series with 2005 as the borderline when we perceived the change of female types in TV drama series. To attain the goal, the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the male lead in 74 melodrama series that ranked high from 1992 till 2012 in terms of the ratings. As a result, from 2005, the types of masculinity of the male lead changed significantly. The followings deal with the details of the change: first, about the age of the male lead, those in the 30's or older increased. Second, unmarried men increased. Third, more of them saw men and women equally, and masculinity types setting no role division for men and women increased. Fourth, masculinity types of having more concern over their appearance increased. Fifth, masculinity types of relying on others when a problem occurred increased. Sixth, in relationship with others, passive masculinity types increased. There was no change in men's jobs, economic level, personality, or sexual consciousness. This study result shows that from 2005, stereotyped masculinity types shown in advanced research have disappeared a lot, and the current men image tends to show both male and female features.

■ keyword : | Melodramas | Male | Masculinity Types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시청률 상위에 위치한 멜로드라마를 대상으로 남성주인공의 남성상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2005년 이후 TV드라마의 여성상을 표상하는데 있어 관습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분석한 바 있다. 포스트페미니즘 텍스트의 유입, 호적법 개정,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의 변화가 있었던 2005년을 기준으로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주인공과 여성대립자 유형의 여성상은 다양한 유목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여성상의 변화가 있었던 2005년 이후 멜로 장르 드라마에서 남성 주인공의 남성상 유형에는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유목에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라캉은 미디어 속의 남성은 시선을 보유하고 보는 주체로서 존재함을 얘기 한 바 있으나 현재의 남성은 여권상승의 분위기와 함께 여성의 시선 아래 객체가 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 생각되어지는 패션과 뷰티와 같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존재하기도 한다[1]. 이러한 이전과는 다른 남성상을 오늘날 미디어에서는 ‘뉴맨(New man)’이라고 하며 뉴맨은 패션과 미용에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2]. 미디어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남성상은 변화하는 세대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현대를 사는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상은 남성상에 대한 시대상과 함께 현대의 여성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재 장르를 불문하고 드라마에 나타나는 남성상에 대한 논문은 매우 적다. 특히 드라마의 남성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학적, 페미니즘 적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여성상 연구에 비할 때 다소 의아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멜로장르의 남성상과 여성상은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상에만 치우쳐진 젠더 연구의 편중현상은 자칫 연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연구자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상 연구가 남성상연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TV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상, 그중에서 멜로장르에 한정하여 남성상의 변화에 대한 양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멜로장르의 여성상을 분석한 연구자의 이전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남성상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최숙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나는 남성상에 대한 연구에서 드라마 단막극에 등장하는 남자를 인구학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등장인물의 배역 비중, 학력, 직업 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세하며 이혼 비율은 남녀가 차이가 없고 기혼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3]. 박수현은 TV드라마에 나타나는 남성상을 패션 스타일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패션, 헤어, 액세서리,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미용 산업 전 분야가 남성 소비자들을 위한 산업에 들어섰으며 TV드라마에 나타나는 패션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뉴맨들은 남성 시청자들에게 감각적인 스타일 정보를 제공한다고 분석한다[4]. 이와는 다르게 미디어에 나타나는 남성상이 현실의 반영이 아닌, 남성이미지를 소비하는 여성 수용자들의 욕망이 표상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라캉은 보임의 욕망이 주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5]. 김종덕은 라캉의 이론에 대해 이미지로 발현되는 미디어 속의 존재는 실제의 재현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구현된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TV모니터 안에 남성 캐릭터들은 보는 존재이자 동시에 보이는 존재로써, 인간 욕망의 표상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남성적이지 않거나 여성적인 성적 정체성을 보여주면서도 이상적인 외양으로 그려지는 새로운 남성상은 광고 마케팅 전략과, 여성들의 욕망과, 서구화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로 해석한다[6]. 최현주는 TV드라마 ‘불량주부’의 남성상에 나타난 성역할 전도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7]. 박나경은 6편의 드라마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상의 왜곡현상을 분석하였는데 성격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씩씩하

고 용감하며 강인한 인물로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의 사회적 위치는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으로 직업의 불균형적 편중현상을 분석하였다[8].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이 연구자가 선택한 드라마 몇 편을 분석 대상으로 놓고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전체 멜로장르에 대한 남성상을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질적 연구의 결론은 현재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상은 여전히 전통적이라는 연구결과와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혼재해 있어 전체 멜로장르 드라마의 남성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드라마 선정에 일정한 규칙을 세우고 분석대상 드라마에 대한 통계 논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2.2 멜로장르의 남성상

멜로드라마 속 등장인물간의 인간관계는 ‘갈등’에서 비롯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캐릭터가 나타난다. 이해넌은 ‘젠더적 글쓰기’에서 멜로장르에 등장하는 ‘왕자형 재벌’은 현실적인 인물이 아닌 여성의 이상적 남성상을 반영한 것이며 여성이 꿈꾸는 소망적 이데아의 결정체라고 분석한다[9]. 이와는 반대로 윤선희는 멜로장르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상은 TV드라마 제작 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의 욕망이 전이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여성수용자들이 멜로드라마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신분 상승 욕구의 대리만족이 아닌 인간관계의 진중성과 로맨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의 즐거움이라고 밝히고 있다[10]. 박나경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 동안 TV드라마에 표현된 남성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강조된 측면이 많다. 남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극단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과 불륜을 정당화하는 가정 파괴범의 모습이거나, 가부장제와 남성 우월주의 아래서 여성을 비하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11]. 박부진은 멜로드라마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남성의 모습을 6가지로 분류한다[12]. 헤이브룬(Heibrun)[13] 셰일러(Sheila)[14]의 성역할에 따른 항목은 [표 1]과 같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

여 진다. 남성은 ‘권위’ 여성은 ‘순정’으로 상징되는 가부장의 지위는 크게 축소되고 여성의 경제력과 권위가 신장됨에 따라 남성상에도 변화가 보인다.

표 1. 남·녀 성역할의 고정관념 항목

Heibrun	남성 다음	적극적인, 오만한, 공격적인, 권력적인, 우쭐해하는, 자신이 있는, 냉소적인, 신중한, 냉철한, 지배적인, 새로운 계획과 야심으로 씨름하는, 강한 선견지명이 있는, 솔직한, 잘생긴, 완고한
	여성 다음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정다운,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를 만족하고 있는, 협력적인, 의존심이 강한, 감정적인, 흥분하기 쉬운, 자신감 결여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여성적인, 변덕스러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친절함, 성실하지 않은, 남을 위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소극적인
박부진	가부장적 남성	권위적이고 무서운 가정, 자신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강요하는 남편, 간섭과 잔소리를 하며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남자,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며 다정하지 못한 남자, 여성(아내, 딸)을 억압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는 남자, 자신의 외도를 남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남자
Sheila	남성 다음	적극적, 용기, 건강함, 자기 통제와 감정적 보류, 끈기와 인내, 능력과 합리성, 독립적, 자기신뢰, 자주성, 개인적, 성적 능력이 강함
	비남성 다음	수동적, 심약함, 약함, 자기 표현적, 의지박약, 감정적, 의존적, 겸손함, 정숙함, 순수함 또는 수용적, 성적 능력이 약함

3. 연구문제

다양한 유목에서 여성상의 변화가 감지되었던 2005년 이후 멜로장르 TV드라마의 남성상은 여성상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통적인 남성상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2005년 이후 한국 TV 멜로장르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의 남성상 유형은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인 유목(연령, 결혼유무, 직업, 경제적 수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신분 수준, 성격, 성의식, 문제해결방식, 타인과의 관계)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4. 연구 방법

4.1 분석 대상

한국 TV드라마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드라마의 소재와 내용에 있어 정치,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던 시기로 사회적 변화가 TV드라마에 담겨지기 어려운 시기였다[15].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언론통제의 법적 장치였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 방송법이 제정되었으며(1990.9.1), 군부독재가 마감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1993.3 김영삼 정부 출범). 이에 발맞춘 1991년 12월 9일 민영방송 SBS의 개국은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시청자의 문화적 욕구와 심리적 동일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대반영의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16]. 연구자는 연구자의 이전 여성주인공과 여성대립자 유형 변화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1992년부터(SBS 개국이 1991년 이나 12월로 개국과 함께 시작된 드라마라 하더라도 보통 10부작 이상임을 감안하면 해당 드라마의 방영 시기는 더 많이 방송된 해인 92년이 되며 우리나라에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시기는 1992년 AGB 닐슨 미디어로 그 이전시기의 시청률 조사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2012년까지를 분석시기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상 표상에 대한 시대의 변화상을 알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대중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시청률 상위의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005년 이전은 전체 시청률 100위 드라마 중 멜로장르를 선별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시청률 상위 20% 이상인 멜로장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이전과 이후의 시청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드라마 시청률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은 AGB닐슨미디어리서치; 분석기간 199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평균시청률 순의 집계 상위 100위안에 드는 멜로드라마, TNS KOREA; 분석기간 199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시청률 20%이상인 멜로장르 드라마로 남자주인공은 [표 2]에서 보이는 74명이 선정되었다. 드라마의 방송연도는 두해가 겹쳐 있을 경우 방

송일수가 더 많은 해로 정하였다.

표 2. 분석대상 남성주인공

1992-2004			2005-2012		
	남자 주인공	드라마 명		남자 주인공	드라마 명
1	윤준서	가을동화	41	이신	궁
2	정영준	노란손수건	42	구준표	꽃보다 남자
3	이민석	두번째 프로포즈	43	현진헌	내이름은 김삼순
4	한기태	명랑소녀 성공기	44	설공찬	마이컬
5	이강토	미스터 Q	45	정재민	발리에서 생긴일
6	강민	별은 내 가슴에	46	김주원	시크릿 가든
7	기정	보고 또 보고	47	성한	식객
8	최종혁	불꽃	48	이다모	신기생던
9	강태우	사랑과 성공	49	윤지훈	싸인
10	강풍호	사랑을 그대에게	50	김현준	아이리스
11	김형준	사랑해 당신을	51	박철수	여우야 뭐하니
12	홍식	서울의 달	52	장기준	은애어
13	서준석	신데렐라	53	박석진	유리의 성
14	정운오	애인	54	금나라	편의 전쟁
15	공수철	엄마야 누나야	55	선우환	찬란한 유산
16	최경민	예감	56	독고진	최고의 사랑
17	철웅	유리 구두	57	최한결	커피프린스 1호점
18	윤형철	이브의 모든것	58	김준세	태양의 여자
19	박인범	젊은이의 양지	59	한기주	파리의 연인
20	정현우	진실	60	이영재	풀 하우스
21	이영호	질투	61	구왕모	하늘이시여
22	성한혁	첫사랑	62	김태섭	행복한 여자
23	동우	청춘의 덫	63	장철수	환상의 커플
24	차승준	토마토	64	김재윤	히트
25	준영	폭풍의 계절	65	지현우	올드미스 다이어리
26	장현우	해바라기	66	이호태	내 사랑 못난이
27	서태풍	해피투게더	67	홍준표	내 남자의 여자
28	현우	약속	68	안중근	외과의사 봉달희
29	진수	우리들의 천국	69	강태봉	달자의 불
30	윤명노	두려움 없는 사랑	70	서우진	스타일
31	길준	모래위의 욕망	71	윤태오	달콤한 나의 도시
32	강태욱	아들의 여자	72	동해	웃어라 동해야
33	철준	마지막 승부	73	김도진	신사의 품격
34	유동근	이 남자가 사는 법	74	서진우	별도 달도 따줄께
35	강준호	복수 혈전			
36	강인하	햇빛 속으로			
37	장태주	그 여자네 집			
38	봉강철	여우와 솜사탕			
39	김인하	올인			
40	차승주	천국의 계단			

4.2 분석방법

4.2.1 남성상 분석 유목

남성상 분석 유목은 연구자의 2011[17], 2012[18]년 논문의 여성주인공과 여성 대립자의 변화상과 비교 분석을 위해 커플유형 유목을 제외하고 외형적 특성 유목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가져왔다. 2011년 논문에서

커플유형이 2005년 이후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증가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외형적 특성 유목은 김종덕의 남성 외형을 분류한 유목[19]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종덕은 TV광고에 나타나는 남성이미지에 대해 크게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뉴맨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헤게모니적 남성상은 전통적인 남성이미지를 보여주는 남성으로 영웅적인 남성이미지, 강한 남성, 주변을 주도하는 남성, 성공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뉴맨의 유형은 좀 더 부드러운 이전의 여성의 영역이었던 패션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고 도시적 소비취향을 보여준다. 남성상 분석 유목은 기술적 분석 유목과 특성 분석 유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술적 분석 유목에는 남성 주인공의 연령, 결혼 유무, 직업, 경제적 수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신분의 5항이 있고 특성분석 유목은 성격, 외형, 성의식, 문제해결방법, 타인과의 관계의 5항이 있다.

표 3. 남성상 분석유목

	유목	내용	출처
기술적 분석 유목	연령	1. 30대 이상. 2. 20대	홍지아(2010) 수정보완
	결혼 유무	1. 미혼 2. 기혼	Gilly(1988) 수정보완
	직업	1. 전문 관리 경영직 2. 그 외	양문화 강형철(2005)
	경제적 수준	1. 상 2. 그 외	홍지아(2009) 수정 보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신분	1. 수준 낮음(수준 1,2,3) 2. 수준 높음(수준 4,5)	Pingree, Hawkins, Butler&Paisley (1976) 수정 보완
특성 분석 유목	성격	1. 온순 2. 강함	홍지아(2009) 수정보완
	외형적 특성	1. 헤게모니적 남성성 2. 뉴맨 유형	김종덕(2007) 수정 보완
	성의식	1. 보수적 2. 개방적	서숙영(2006) 김명혜(2006) 수정 보완
	문제 해결 방법	1. 타인 의존 2. 자기 주도	윤선희(2005) 수정 보완
	타인과의 관계	1. 수동적 2. 동등하거나 주도적	한은경(2003) 수정보완

4.2.2 코더간 신뢰도

코딩기간은 2012.2.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연구자를 포함한 한명의 코더가 코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는 91%였다. 이후 분석에 있어서 오차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를 통해 TV드라마

속의 남성이미지와 분류항목에 대한 동의를 이룬 후 분석대상인 74편의 드라마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4.2.3 통계방법

분석대상 드라마의 1, 2회 방영분을 시청한 후에 남성상 유형을 분류하였고 1, 2회분에서 남성 주인공의 유형이 분석되지 않을 시에는 남성상이 구체화 될 때까지 시청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2, program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는 명목변수이므로 단순 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단순분석에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 검정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5%(P value = 0.05)로 검증하였고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함께 표시하였다.

5. 분석 및 분석 결과

2005년 이후 TV드라마 남성 주인공의 남성상 유형은 여성상보다도 더 많은 유목에서 변화가 있었다. 여성주인공의 여성상은 연령과, 사회적 신분수준, 외형적 특성, 문제해결 방법, 타인과의 관계의 5개의 항목이었으나 남성주인공의 남성상 유형은 변화는 총 6개의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다.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연령, 결혼여부,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신분수준, 외형적 특성, 문제 해결방법, 타인과의 관계에서 $P < .05$ 의 유의미한 변화상을 보였다. 직업과 경제적 수준, 성격과 성의식은 변화가 없었다. 직업은 2005년 이전과 이후 상관없이 전문직과 그 외의 직업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수준 항목과 성의식 항목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이다. 성격 항목에선 2005년 이전과 이후 상관없이 강한 성격이 다수를 차지했다. 2005년 이후 변화한 남성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멜로장르 TV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의 연령은 2005년 이후 30대 이상이 20대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오즈비 2.95 95%신뢰구간 0.14-7.70) 둘째, 멜로장르 TV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의 결혼 여부는 2005년 이후 미혼 남성 2.9배 증가하였다.(오즈비2.85;

95%신뢰구간 1.01-8.08) 셋째, 멜로장르 TV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바라보거나 그 이상으로 바라보는 평등의식이 높은 경우가 2005년 이후 27배 대폭 증가했다.(오즈비 27.14; 95%신뢰구간 5.61-131.44) 넷째, 멜로장르 TV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의 외형적 특성은 2005년 이후 뉴맨 유형이 24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오즈비 24.07; 95%신뢰구간 4.97-116.24) 다섯째, 멜로장르 TV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005년 이후 타인에게 의존적 성향을 보이는 남성상이 9배 증가했다.(오즈비 9.09; 95%신뢰구간 1.85-44.70) 여섯째, 멜로장르 TV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은 2005년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남성상이 1.4배 가량 증가했다.(오즈비 1.36; 95%신뢰구간 1.11-1.66)

표 4. 방영 시기별 남자주인공 유형 빈도

년도 (N)	1992-2004 (40명)	2005-2012 (34명)	오즈비 (95% 신뢰구간)	P-value
연령(30대 이하)	28명 (70%)	15명 (44.1%)	2.95 0.14-7.70	0.025
결혼(미혼)	23명 (57.5%)	27명 (79.4%)	2.85 1.01-8.08	0.045
직업(전문 관리 경영직 외)	22명 (55.0%)	15명 (44.1%)	0.65 0.26-1.62	0.351
경제적 수준(중, 하)	22명 (55.0%)	15명 (44.1%)	1.65 0.26-1.62	0.351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신분 수준(수준 높음)	2명 (5.0%)	20명 (58.8%)	27.14 5.61-131.44	0.000
성격(온순)	9명 (22.5%)	13명 (38.2%)	2.13 0.77-5.88	0.140
외형적 특성(뉴맨유형)	2명 (5.0%)	19명 (55.9%)	24.07 4.97-116.24	0.000
성의식(보수)	15명 (37.5%)	19명 (55.9%)	2.11 0.83-5.36	0.114
문제해결 방법(타인의존)	2명 (5.0%)	11명 (32.4%)	9.09 1.85-44.70	0.002
타인과의 관계(수동)	0명 (0.0%)	9명 (26.5%)	1.36 1.11-1.66	0.000

2005년 이후 TV드라마의 남성주인공은 여성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20대가 줄고 30대 이상이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이후 미혼 남성 주인공도 증가하였다. 이는 늦어지는 결혼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30대 미혼 여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 적령기가 20대에서 30대로 옮겨 감으로 인해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의 연령대가 함께 옮겨 간 것이다.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 주인공의 사회적 신분 수준은 2005년 이후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여기거나 여성과 남성의 역할 구분이 없는 '수준 높음'의 경우가 27배 증가로 큰 폭의 증가 현상을 보인다.(오즈비 27.14; 95%신뢰구간 5.61-131.44). 2005년 이후 TV드라마에 나오는 남성은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할 수 있다.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없고, 여성도 전통적으로 남성스럽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남성도 전통적으로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여우야 뭐하니」의 철수와 「달자의 봄」의 태봉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연하남으로 남성주인공보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주인공에게 물질적으로 기대기도 한다. 「스타일」의 우진과 「식객」의 성찬은 요리사이다. 이들은 여성주인공을 위해 요리하기를 즐기며 여성주인공은 이들의 요리를 먹고 남성주인공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휴식을 취한다. 남성 주인공의 외형 또한 2005년 이후 뉴맨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오즈비 24.07; 95%신뢰구간 4.97-116.24). 쉐링(Shilling)은 사회적 지위와 자본이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고 여성이 남성의 애인과 아내의 자격으로 남성의 자본을 공유하는 체제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육체 자본으로 활용되는데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성의 몸은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전형적인 날씬한 몸매의 여성적 외모가 요구된다고 말한다[20]. 그러나 2005년 이후 몸을 치장하는 뉴맨 유형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여성주인공의 비여성성과 30대 이상의 증가 현상과 함께 남성 우월적 젠더 역학에서 보다 평등한 젠더 역학으로의 변화로 읽혀진다. [그림 1]의 2005년 이후의 남성상은 그 이전의 남성상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패션스타일을 갖고 있고 외모를 가꾸는 일을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크릿 가든」의 주원은 자신의 트레이닝복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손수 만든 트레이닝복이라고 하며 비여성적 외모의 여성 주인공이 트레이닝복에 가치를 모르는 것을 안타깝

게 여긴다. 「최고의 사랑」의 독고진은 자신이 매치한 스카프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본 후 매우 기분이 상해하며 ‘개나 소나 매는 스카프’라고 말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 이들에게 패션은 남들과 다른 나를 만들어 주는 자기표현의 영역이다. 문제 해결방법과 타인과의 관계 유목에 있어서도 2005년 이후 남성주인공은 타인을 의존하거나 수동적인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문제해결 방법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였던 여성주인공 유형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발리에서 생긴일」의 정재민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사에 출근한다. 아버지에게 골프채로 맞기 일쑤이고 그럴 때마다 엄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망은 거의 없고 업무적인 실수를 하게 될 때에는 엄마에게 떼를 써서 위기를 모면한다. 「커피프린스 1호점」의 최한결 역시 책임감, 성공, 가족을 지키려하는 전통적인 남성의 욕망이 결여되어 있으며 오픈카를 타고 술과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할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을 탕진한다. 이는 2005년 이전의 남성주인공인 과 대비가 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의 고정관념 항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계획과 야심으로 씨름하는, 권력적인, 냉철한, 끈기와 인내, 자기통제와 거리가 먼 모습이다. 오히려 전통적인 개념의 여성적 고정관념 항목인 의존심이 강한, 수동적,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전통적 남성 항목을 갖고 있는 여성주인공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남성주인공들은 억척스럽고 적극적인 여성주인공을 만나 책임감과 배려를 갖춘 남성으로 변해간다. 이는 2005년 이후 이전의 남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은 부분에서 사라지고 보다 양성화 된 남성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6. 결론

2005년 이후 멜로장르 TV드라마 남성주인공의 변화상을 분석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시청률 상

위에 위치한 멜로드라마의 남성주인공 74명을 선정하여 2005년 이후 변화상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남성주인공의 연령은 30대가 증가하였다. 둘째 미혼남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여성에 대한 평등의식이 높아졌다. 넷째, 외모를 치장하는 뉴맨의 남성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타인을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남성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남성이 증가하였다.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많은 부분에서 사라지고 여성과 남성의 고정관념이 뒤바뀌는 현상을 보이며 남성상이 2005년 이전에 비해 보다 양성화 되는 측면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TV드라마에 성역할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최현주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입증한 것이며 TV드라마에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남성상이 등장한다고 분석한 박나경 등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일부 드라마에서 전통적인 남성상이 등장할 수는 있으나 2005년 이후 드라마의 남성상은 전통적인 개념의 남성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결과이다. 젠더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과연 시대의 남성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TV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상이 시대에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질적 연구에 새로운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희 등의 주장대로 TV드라마의 남성상이 제작자들의 의도에 의해 설정된다면 제작자들이 왜 현재와 같은 전통적 남성상과는 차이가 있는 남성 인물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질 수 있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남성상이 여성들의 이상적인 남성상의 반영이라는 견해를 보이는 김종덕, 이해년 등의 주장대로라면 여성들의 이상적인 남성상이 현재와 같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시기 간에 시청률 조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며 향후 전수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송민희, “주체의 변화와 여성적 응시-한국 뮤직 비디오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

[2] 김종덕, “한국 TV광고에 나타난 남성성 연구”, 광고학 연구, 제18권, 제1호, p.215, 2007.

[3] 최숙,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남성 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4] 박수현, “드라마 속에 나타난 남성 패션 스타일 분석-제빵왕 김탁구와 자이언트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6권, 제4호, p.164, 2012.

[5] Lacan, Jacques, 1949, 권택영 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p.30, 1994.

[6] 김종덕, “한국 TV광고에 나타난 남성성 연구”, 광고학 연구, 제18권, 제1호, pp.237-240, 2007.

[7] 최현주, “텔레비전 드라마에 묘사된 성역할 전도와 그 함의-남성 전업주부 드라마 <불량주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4호, 2008.

[8] 박나경,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남성상 연구-현대 멜로드라마의 남성상 왜곡 현상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9] 김종덕, “한국 TV광고에 나타난 남성성 연구”, 광고학 연구, 제18권, 제1호, pp.238-239, 2007.

[10] 윤선희,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역 전이와 코라 -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의 시각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다시 읽기”, 한국언론학회, 제29권, 제2호, 2005.

[11] 박나경,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남성상 연구-현대 멜로드라마의 남성상 왜곡 현상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12] 박부진, “한국 현대 가족에서의 가부장의 지위”, 여성·가족생활연구논총, 제7집, 명지대학교, p.14-15, 2002.

[13] Heibrun, *Human Sex-role behaviour*,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14] Sheila Ruth, *Issues in Feminism*, An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5.

[15] 김승현, 한진만, *한국사회와 텔레비전 드라마*, 한울아카데미, 2001.

[16] 이화정,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58, 2012.

[17] 이화정, *한국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주인공의 여성상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p.61, 2011.

[18] 이화정,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10호, p.59, 2012.

[19] 김종덕, “한국 TV광고에 나타난 남성성 연구”, 제18권, 제1호, p.227, 2007.

[20] C. Shilling, *The Body and Social Theory*, 1993, 임인숙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사, 1999.

저 자 소 개

이 화 정(Hwa-Jeong Lee)

정희원



- 1998년 2월 :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미술 학사)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미술학 석사)
 - 2012년 2월 : 홍익대학교 영상학과(미술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방송미디어 콘텐츠